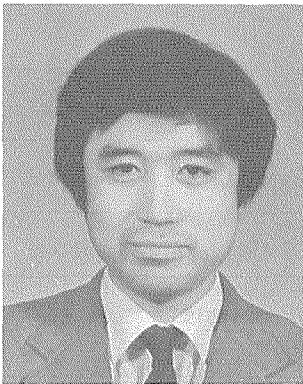




'91년 결산 유감



金光緒
<극동정유 업무부장>

I. 문제의 제기

지난 '91년 국내 정유5사는 매출액 100,527억원, 당기순손실 471억원을 시험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極東의 손실에 기인한 것이나, 타 정유사의 이익도 매출액에 비하면 세간의 정유산업에 대한 인식을 뛰어넘는 저조한 실적이라 하겠다.

정유사의 이같은 실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나 석유산업의 개방화·자유화와 더불어 석유소비의 급증 및 수요구조의 변화 등 안팎으로 불어오는 모진 바람은 정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가격의 정부통제와 과도한 이익규제로 적절한 대응능력 구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極東의 손실규모가 말해주듯 준폐의 위기감마저 느끼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유5사 '91년 결산 실적

(단위 : 억원)

		유 공	호 유	경 인	쌍 용	극 동	계
매출액	1990	31,849	24,950	6,116	8,217	6,653	77,785
	1991	40,201	27,083	7,649	18,140	7,454	100,527
	증 감 (%)	8,352 (26.2)	2,133 (8.5)	1,533 (25.1)	9,923 (120.8)	801 (12.0)	22,742 (29.2)
당기순익	1990	313	411	74	259	▲1,167	▲110
	1991	245	466	43	403	▲1,632	▲475
	증 감 (%)	▲68 (▲21.7)	55 (13.4)	▲31 (▲41.9)	144 (55.6)	▲465 (▲39.8)	▲365 (▲331.8)

경영에 대한 책임이야 궁극적으로는 회사에 귀속 되어야 할 것이나 오늘의 정유산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현행 유가관리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할 것이므로 여타의 구체적인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다음에서는 허용이익의 규제와 증질유 분해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중심으로 간단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

II. 현행 유가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유가관리제도 개관

현행 유가관리제도는 정부의 가격통제와 정유5사

평균 유가관리제도로 집약할 수 있으며, 정부에 의한 전국 균일 최고가격제도, 정유사의 평균 비용에 근거한 유가결정, 정부에 의한 정유사의 이익관리, 석유사업기금 및 석유세제의 정책적 운용, 에너지 소비정책적 측면에서의 유종간 소비자 가격 결정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1) 정부 통제 가격 제도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가격은 자유화유종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결정하여 유종별, 유통단계별로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현재 가격 자유화유종은 제트유, 용제, 아스팔트, 나프타, 휘발유 및 등유로서 총 판매물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가격자유화현황

'92. 1. 1 현재

가 격 자 유 화 유 종	물 량 비 율	비 고
제 트 유, 용 제	5.3%	1983. 2
아 스 팔 트	1.6%	1988. 11
나프타, 고급휘발유, 군용휘발유	11.3%	1989. 3
보통휘발유, 무연휘발유, 등유	10.4%	1991. 9
합	28.6%	

(2) 정유5사 평균 유가관리제도

정부는 정유사의 수익 및 비용을 사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유5사의 평균수익 및 비용을 산정하여 유가관리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석유사업기금이나 석유제품가격의 조정을 통하여 반영되는데 비용중 적정이윤 규모는 정유사업 자기자본의 세전 16.5%로 제한 되어있다.

이러한 정유5사 평균 유가관리제도는 단순 정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증질유 분해사업은 제외되어 있다.

2. 현행 유가관리제도의 문제점

비용기준의 유가관리는 시장 참여자(정유사)의 인위적인 유가조정의 가능성과 함께 투자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정유사 평균으로 관리됨으로써 한 회사의 비용증감이 타사의 이윤증감으로 이어지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외에도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유가가 결정됨으로써 자원의 비 효율적 배분과 과소비를 야기하고 지나친 이윤 통제는 정유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1) 정책적 고려에 의한 유가 결정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유종간 상이한 가격구조와 수준에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국제가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됨으로써 수급불균형 및 과소비등 소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러한 저가정책의 비탄력적인 운용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석유 의존도를 심화시킴으로써 수급의 안정을 저해하게 되고 국제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대응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2) 정유사의 이윤 통제

개방화·자유화 및 석유 소비증가는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정규모의 정제능력 보유,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국내석유수급의 불안요인해소를 위한 상류 부문 진출 등 사업다각화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소비구조의 경질화 추세와 환경

주요국의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 비교

'91년 12월 기준

	휘발유(무연)		등유		경유(저유황)		B-C유(저유황)	
	원/L	\$/B	원/L	\$/B	원/L	\$/B	원/L	\$/B
한국	497.0 (100)	103.9	216.0 (100)	45.2	182.0 (100)	38.1	92.2 (100)	19.3
일본	742.5 (149)	155.3	298.1 (138)	62.4	447.6 (246)	93.6	161.8 (175)	33.8
대만	532.1 (107)	111.3	410.6 (190)	85.9	380.0 (209)	79.5	120.0 (130)	25.1
프랑스	744.8 (150)	155.8	-	-	427.9 (235)	89.5	85.3 (93)	17.85
서독	725.0 (146)	151.7	-	-	456.0 (251)	95.4	113.2 (123)	23.7
미국	214.3 (43)	44.8	-	-	251.0 (138)	52.5	87.2 (95)	18.25
비고	프랑스, 서독 : 고급유연 미국, 일본 : 보통무연				프랑스, 서독, 미국 : 산업용 고유황 증유			

* 환율 : 1\$ = W 760.00, NT \$ 25.0

문제 해결을 위한 증질유분해 및 탈황시설등 2차 정제시설의 건설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이익의 규제로 투자비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도시설에 선투자한 회사의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비 부담에 따른 손실이 가중됨으로써 정유산업자체의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정유사 전체의 이윤을 통제함에 따라 정유사는 자기자본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되나 설비투자의 증가를 통한 자기자본의 증가보다는 이윤을 잉여금에 포함시켜 내부자금으로 보유하는 식의 자기자본 증가를 추구하므로 설비투자의 효과적수행을 저해하고 한 회사의 이익증가는 타사의 이익감소를 초래하여 정유사간 선의의 경쟁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

Ⅲ. 국내 정유산업의 성장을 위한 과제

이와같은 정유산업의 당면 과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재원의 확보가 관건이라 할 것이며 현재 논의되고있는 곁프사태에 따른 손실보전, 정제비 현실화, 환차손보전등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현행 유가관리제

도의 정책적인 운용의 묘라 할 것이므로 유가관리제도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유가의 적정수준으로의 인상과 함께 허용이익 수준의 상향조정 및 증질유분해사업의 경제성제고를 제안하고자 한다.

1. 허용이익 수준의 상향조정

현행 정유사업의 적정허용 이윤은 정유사업 자기자본에서 재평가적립금 및 배당금이 차감된 유가기준 및 자기자본의 세전 16.5%(세후 약 10%)로써 그 절대규모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마저 비용부인 등을 통해 전액 향유 할 수 없는 형편이며 정유업계의 경영개선에 의한 이익 증가가 유가 또는 기금으로 환수됨에 따라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유인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윤 통제는 투자위험이 정유업과 유사한 화학산업, 자동차산업, 가전제품 제조업과 비교해 보더라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적정 자기자본 이윤율은 적절한 사내유보를 위한 재원, 투자된 자본에 대한 신뢰를 유지시켜 나가는 데 필요로하는 적절한 배당, 그리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 하기위해 필요로 하는 재투자 재

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주요업종의 자기자본 이익율

(단위 : %)

	정 유	화 학	자 동 차	가 전	제조업평균
1983	0.5	10.6	23.3	21.4	8.7
1984	4.8	6.6	14.5	12.1	6.3
1985	11.2	6.3	12.7	10.0	5.6
1986	9.4	9.2	10.6	12.5	10.2
1987	9.8	9.8	12.2	10.1	9.6
1988	8.5	10.7	7.3	11.8	9.0
1989	5.6	8.5	5.0	11.3	5.5
1990	1.8	7.9	6.9	6.4	5.1
평 균	6.5	8.7	11.6	12.0	7.5

2. 중질유 분해사업의 경제성 제고

(1) 중질유 분해사업의 유가반영

국내 석유소비 경질화추세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유종간 수급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중질유 분해시설의 건설이 필연적이며 동 시설의 비용 및 수익이 유가에 반영되어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중질유분해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타 정유사는 대규모의 반사이익을 향유케 되어 정유사간 손익이 크게 왜곡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동반사이익은 별도기금으로 규정하여 당해년도의 석유사업 기금 총 징수규모 결정시 포함시키고 중질유 분해시설의 경제성 제고 및 투자촉진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유종간 가격구조 개편

또한 휘발유 : 경유, 경유 : B-C유 등 유종간 상대 가격 구조를 국제가수준으로 개편하여 수급의 균형과 안정, 소비의 효율과 함께 중질유 분해시설의 경제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차제에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구조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다양해지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는 석유제품의 고급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질유 분해사업은 그 대응책의 일환이므로 이에 따른 비용은 상대가격 구조의 개편과 함께 유가의 적정수준으로의 인상으로 회수되어야 할 것이다.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은 공해문제 등 사회비용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므로 결국 소비자의 이익으로 귀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공장도가격구조와 국제시장 가격구조

'92년 1월 기준

	한 국	싱가포르	로델담	걸 프
휘 발 유	147	101	99	N.A
등 유	131	100	102	101
경 유	100	100	100	100
B - C 유	61	N.A	71	N.A

IV. 맺는 말

지금까지 '91년도 정유사 결산실적에 따른 국내 정유산업의 문제점을 현행 유가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개방화 및 자율화의 과대기를 맞고 있는 정유산업이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유사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과 소비자 보호 및 서비스 차원의 인식전환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이와함께 석유가격의 인상과 구조개편을 통하여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를 유도함과 아울러 정유사의 적정이윤 보장, 중질유 분해사업에 대한 지원등 정부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하겠다.

특히 석유소비의 증가와 경질화 추세는 환경정책, 국제 수지와도 맞물려 있는 문제인지라 경유와 B-C 유의 수출이 말해주듯 단순정제시설의 증설만으로는 한계와 모순이 있다 할 것이므로 중질유 분해사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여건 조성을 제삼 강조하면서 글을 맺는다.